

세계기독교의 관점에서 본 예술을 통한 종교교육*

- 운보 김기창의 〈예수의 생애〉(1952) 활용사례 -

안 신**

【요약】

본 논문은 세계기독교의 관점에서 운보 김기창의 연작 〈예수의 생애〉(1952)를 중심으로 예술을 통한 종교교육의 가능성과 활용모델을 검토한다. 연구방법론으로서 세계기독교는 서구기독교의 해석에서 벗어난 새로운 해석을 모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운보는 청각장애를 극복한 한국화가로서 기독교예술의 한국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전쟁의 피난생활 속에서 창작된 〈예수의 생애〉는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예수가 한국산하에서 고통 받는 한국인들과 함께 하며 가르치고 치유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의 작품을 경전·의례, 비교종교, 전쟁, 여성 등의 주제별로 종교교육의 현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절기, 교리, 교훈, 차이 등의 주제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앞으로 운보의 다른 작품들과 자서전 및 서화집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활용 가능한 종교교육모델이 마련될 것이다.

주제어: 운보 김기창, 〈예수의 생애〉, 예술을 통한 종교교육, 세계기독교, 한국화

I. 서론: 왜 운보(雲浦)의 작품인가?

21세기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교육은 다양한 방향과 여러 차원에서 방법과 이론의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¹⁾ 미국학계는 공립학교의 성경교육이 학문적 차원에서 교육된

* 본 논문은 2018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배재대학교 교수, shinahn@pcu.ac.kr

1) Hans-Georg Ziebertz, *Religious Education in a Plural Western Society: Problems and Challenges* (Münster: Litverlang, 2003), p.31.

다면 학생의 영성과 도덕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²⁾ 유럽학계는 종교 교육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치구원의 기능을 갖는다고 해석한다.³⁾ 종교교육은 초월의 이미지를 예술로 표현하여 종교교육의 효과를 높인다.⁴⁾

최근 한국학계는 문화신학과 선교신학을 넘어 ‘예술목회론’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⁵⁾ 같은 맥락에서 서구학계도 학제 간 연구를 통한 ‘미술박물관의 신학’을 제안한다. 국내외 탐색은 〈운보박물관〉에 적용이 가능한데,⁶⁾ 〈예수의 생애〉⁷⁾는 1954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계 25개국에 초대되었다.⁸⁾

본 논문은 세계기독교(World Christianity)의 관점에서 운보(雲浦) 김기창(金基昶, 1914-2001)의 〈예수의 생애〉(1952)가 지닌 종교교육의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하고 작품을 활용한 강의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의 이미지는 서구 중심으로 형상화되었다. 유명 회화나 조각은 물론, 영화에 이르기까지 예수는 ‘금발의 서구 남성’의 이미지로 대중에게 각인되어 왔다. 그러나 운보는 한국적 맥락에서 예수의 이미지를 재해석하고 한국 전쟁으로 고통 받는 한국인과 동행하는 ‘상처 받은 치유자’의 이미지를 강조한다.⁹⁾ 서구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고, 한국문화와 공존하며 한국인의 심성에 동화된 예수의 모습을 제시한다.

운보의 〈예수의 생애〉를 활용하는 교과목은 2학점 교양필수과목으로 매주 2시간 배정되어 있으며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단위로 개설된다.¹⁰⁾ 미국감리회 선교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858-1902)가 설립한 기독교사립종합대학으로 “크고자

2) Mark A Chancey, “The Bible and American Public Schools”, eds. by Michael D. Waggoner & Nathan C. Walker, *The Oxford Handbook of Religion and American Edu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p.271-282.

3) L. Philip Barnes, “Democracy, political salvation, and the future of religious education,” ed. by Mary Shanahan, *Does Religious Education Matter?* (London: Routledge, 2017), pp.169-183.

4) 본 논문에서 특정종교 교리주입의 ‘종교훈육’(education of religion/religious instruction)과 종교일반 교양함양의 ‘종교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religious education)을 구별한다. 특히 대학교(University)의 기독교교육은 종교교육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5) 손원영 편, 『예술신학 톺아보기』(서울: 신앙과지성사, 2017)을 참조하라.

6) 1984년에 설립된 〈운보의 집〉과 〈운보박물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형동2길 92-41에 위치해 있다. 3만여 평의 공간에 운보와 우향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7) 운보 김기창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전이 서울미술관에서 〈예수와 귀먹은 양〉이라는 주제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있었다.

8) 이주연, 「김기창화백작 ‘예수의 생애’ 독일정부주최전시초청」, “가톨릭신문” 2017년 4월 23일자.

9) 운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최병식, 「운보 김기창 ‘바보화풍’의 시기별 특징과 가치」, 『동양예술』, 제33권(서울: 한국동양예술학회, 2016), 233-256쪽; 윤종선, 「운보 김기창의 화문집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41권(서울: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2018), 251-286쪽; 김혜주, 「김기창의 바보산수에 나타난 현대성」, 『현대미술사연구』, 제13권1호(서울: 현대미술사학회, 2001), 103-125쪽 등이 있으며, 〈예수의 생애〉의 종교교육 활용사례 논문은 전무하다.

10) 1학년 학생이 수강을 못하는 경우, 고학년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수업이 두 강좌 있으며, 재수강학생들도 참여한다. 2014년부터 온라인과목도 개설하여 정규학과와 계절학기에 제공되고 있다.

하거든 남을 섬기라”(마태복음 20:26-28)를 건학이념으로 삼는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종교로의 기독교에 대한 교양함양을 위한 ‘종교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으로 기획되었다. 기독교문화의 역사와 특징 및 사회문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강좌를 운영한다. 전임교수를 중심으로 외래교수(강사) 15명~20명 정도가 매학기 강의를 진행한다. 담당교수는 신학이나 종교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배정한다.¹¹⁾ 처음 〈기독교와 현대사회〉라는 과목명을 가지고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회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¹²⁾ 그러나 최근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독교정신과 아펜젤러인성〉으로 강의명을 변경하였다.¹³⁾ 기독교의 본질과 학교설립자 아펜젤러 선교사의 건학이념을 구현한다는 취지이다. 연구자는 본 교과목에 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하였고, 윤보의 〈예수의 생애〉를 사용하여 긍정적인 강의평가를 받은 바 있다.

II. 세계기독교의 관점: 서구기독교를 넘어서

연구방법으로서 세계기독교는 기독교 중심이 유럽과 북미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20세기말부터 유럽과 북미의 기독교는 세속화로 교세가 급감해 왔지만, 비서구기독교는 급성장하고 있다. 기독교를 개신교와 천주교로 구분해 보면, 개신교의 중심은 북미에서 아프리카로, 천주교는 유럽에서 남미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¹⁴⁾ 따라서 이제 기독교연구는 ‘서구기독교’의 역사와 확산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계기독교’ 연구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오대양육대주에서 나타나는 기독교공동체의 신앙과 의례의 양태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세계화와 국제화는 특정문화를 절대화하지 않고, 여러 문화와 종교가 교차하는 복합실체의 현상을 형성한다. 종교 간 만남과 대화는 일방적일 수 없으며, 양방향에서 지속

11) 본 연구자는 종교학을 전공한 종교교육 담당교수로서 2010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종교 관련 교양필수과목을 강의했다.

12) 장춘식, 이성덕, 강원돈, 『기독교와 현대사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3-4쪽. 1부 기독교와 역사, 2부 기독교 신앙의 기초, 3부 기독교의 성서 이해, 4부 기독교의 현실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4부는 기독교와 정치, 경제, 환경, 생명, 여성 윤리 등 사회문제를 다룬다.

13) 이성덕, 손의성, 안신, 김기철, 『기독교 다시 보기』(대전: 배재대학교 학술정보처, 2014), 3-4쪽. I부 인간과 종교, II부 성서와 기독교 신앙의 기초, III부 기독교와 영성생활, IV부 기독교와 사회,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D. Paul Sullins, "Beyond Christendom," ed. by Elizabeth Koepping, *World Christianity IV* (London: Routledge, 2011), pp.299-304. 설린스는 북부기독교와 남부기독교에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이분법을 적용하는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적 교류와 타협이 진행된다.¹⁵⁾

종교교류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예일대 사네(Lamin Sanneh)¹⁶⁾에 따르면, 기독교는 여러 문화로 거침없이 흡수되는 번역가능성(translatability)을 지닌다. 기독교메시지를 수용하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도 배제하는 태도를 버리고 수용하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언어와 문화, 모든 인종과 인간의 조건 속에서도 편안함과 익숙함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번역가능성은 무한한 해석의 기회를 열어놓으므로, 메시지전달자의 시각에서 이질적이며 부정적 요소로 판단된다. 이러한 긴장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체나, 메시지를 받는 객체는 권력관계를 공고히 하기보다는 주객의 경계가 무너지고, 때로는 주객의 자리가 전위되면서, 상호주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¹⁷⁾

에딘버러대 월스(Andrew Walls)는 아프리카종교사의 기술방식에 주목한다.¹⁸⁾ 그는 라투렛을 비롯한 20세기 역사가들의 저작들을 분석하면서 종교현상의 독특성을 확인한다. 그는 교회, 왕국, 복음의 세 차원을 제시하였는데,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면 신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의 궁극성을 고백하는 ‘교회의 표시’가 먼저 나타난다. 교회 안에 선택된 자로서의 인식이 공유되면서 교회를 쇄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키고 때로는 도전하여 그리스도의 영향을 세계에 전달하려는 ‘왕국의 표시’가 형성된다. 끝으로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악에 승리한 것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대응하는 ‘복음의 표시’를 드러낸다.¹⁹⁾

세계기독교의 역사에서 천주교와 개신교 선교사들은 토착문화에 대한 존중과 수용의 태도를 나타냈다. 사네에 따르면, 식민지시대 천주교선교사들은 스페인어를 교회 안에 제도화하려는 식민지당국의 정책에 대항하여 오히려 토착민의 언어를 수용했고, 이 과정에서 바티칸은 교회의 의례와 치리에 토착어의 위상을 인정하고 제도화하는 입장을 도왔다. 멕시코에서는 천주교가 교회 안에 토착예술까지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일본과 인도에서는 토착문화의 수용을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나중에 지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회심자들이 단순히 서구문화를 답습하는 수동적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역동적 해석의 주체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개신교선교역사

15) Dale T. Irvin, "What Is World Christianity?", eds. by J. Y. Tan & A. Q. Tran, *World Christianity: Perspectives and Insights* (Maryknoll, NY: Orbis Books, 2016), pp.3-5.

16) 사네는 서아프리카 감비아 출신으로 영국 버밍햄대 석사를, 런던대 박사를 마쳤다. 수니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영국선교사의 영향으로 감리교로 개종했고, 미국에서 천주교로 개종하였다.

17) Lamin Sanneh, *Translating the Message* (Maryknoll, NY: Orbis, 1989), pp.51-54.

18) 월스는 옥스퍼드대에서 초대교회를 공부한 후, 아프리카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다가 ‘학문적 회심’을 경험하였다. 이후 아프리카종교의 역동성과 창조성에 대한 저술과 강연을 해왔다.

19) Andrew F. Walls, *The Cross-Cultural Process in Christian History* (Maryknoll, NY: Orbis Books, 2002), pp.25-26.

에서 성경번역은 토착민의 언어에 대한 습득과 활용을 선교의 필수조건으로 삼았다. 이로 인하여 서구의 언어와 문명의 이기보다는 토착민의 언어와 문화가 유지되고 부흥될 수 있었던 토대가 마련하였다는 주장이다.²⁰⁾ 사네는 기독교의 서구제국주의 확산기여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서번역을 통해 원주민의 언어와 토착민의 문화가 부흥되었으므로 제국주의와의 차이를 주장한다.²¹⁾ 초기 서구선교사들이 기독교와 서구문명을 동일시함으로써 선교에 도움이 일부 되었지만, 후에 서구문명의 세속화와 비도덕성이 증가하면서 기독교와 문명을 동일시한 모델의 약점이 드러난다.²²⁾

한편, 세바스천 김(Sebastian Kim)과 커스틴 김(Kirsteen Kim)에 따르면, 세계기독교는 ① 지형학의 차원에서 기독교인구가 제3세계에서 급부상하고 있고, ② 신학의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범세계적이며, ③ 지리학의 차원에서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지역적으로 뿌리를 둔다는 점을 지적한다. ④ 사회학의 차원에서 세계기독교는 아래로부터의 지구화이며, ⑤ 역사학의 차원에서 기독교는 번역가능하고 상황화되며, ⑥ 구조의 차원에서 국가를 초월하는 형태를 지닌다.²³⁾ 이와 같이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설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기독교의 관점에서 운보의 작품에 대한 종교교육의 의미를 탐색해 보자.

III. 세계기독교의 연속성: 운보의 성경, 세례, 성찬

월스는 역사적 기독교가 세계로 확산되고 문화에 동화되는 과정에서 본질적 연속성(essential continuity)을 발견한다. 그에 따르면, 세계기독교의 공동체와 구성원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의 궁극적 의미에 대하여 사고의 연속성을 갖는다. 한국전쟁 당시에 운보의 창작동기에도 민족의 고통과 예수의 고통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예수의 삶을 통하여 한국인의 고난과 치유, 죽음과 부활을 신학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적어도 신앙적으로 구체화하려는 몸짓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로, 역사에 대한 특정한 의식의 연속성이 있다. 역사의 폭력 앞에서 비인간화의 위기 속에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여러 사건과 조우하면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역사의 주

20) Sanneh, op.cit., pp.124-125.

21) Lamin Sanneh, *Disciples of All Nations: Pillars of World Christian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271.

22) Ibid., p.230.

23) Sebastian Kim & Kirsteen Kim, *Christianity as a World Religion*, 2nd ed. (London: Bloomsbury, 2016), pp.1-22. 두 저자는 최근 미국 풀러신학대학원으로 이동하였다.

인은 신이며, 따라서 역사의 흐름에는 신의 의지와 섭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강력한 역사의식을 기독교인들은 공유한다. 셋째로, 성경, 포도주, 빵, 물의 사용에 대한 연속성을 성경번역과 성찬식 및 세례식에서 확인한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의 경전생활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성경에 대한 존중과 사용방식이 있다. 성경을 번역하고 암송하며 심지어 필사하는 전통에서 확인되듯이, 한국기독교는 성경 중심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²⁴⁾

운보의 〈예수의 생애〉는 성경과 성찬에 대한 창조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언행과 기적을 연대기적으로 시각화한다. 다시 말해, 점, 선, 면, 색의 세계를 통하여 성경의 내용을 한국적인 시선으로 구현한다.²⁵⁾ 운보는 7번 작품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Jesus Baptized by John)에서 예수의 이미지를 한국적으로 해석한다. 한국의 산천을 배경으로 중앙 상단에서 여러 줄기에 빛이 검은 구름들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순간을 표현한다. 운보는 금강산을 스케치하며, 산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적고 있다.

“산은 높고 기암괴석이 좌우에 깔려있으며 이상한 새들은 여기저기 숲속을 날고 개울에는 맑고 시원한 물이 팔팔 흘렀다. 나는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 사람 하나 만날 수 없는 깊은 산 속이어서 무서운 느낌마저 들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찬송가를 혼자 불러 마음을 가라앉게 했다.”²⁶⁾

한국의 산천은 운보의 주요 작품소재였다. 그림 중앙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예수의 머리 위로 세례 요한이 바가지에 물을 담아 강물을 뿌린다. 세례요한은 왼쪽 어깨 위로 긴 십자가 장대를 기대어 세워놓고, 오른손으로 바가지를 든다. 예수는 웃옷을 벗고 세례의식을 받는다. 성령을 비둘기로 형상화하는 대신에 칠 선녀가 좌우에 등장하여 피리, 소, 바라, 단소, 생황, 비파 등을 연주하며 구름과 함께 내려온다. 흐르는 강 옆에는 갈대가 무성하고, 강 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르며, 뒤로 웅장한 산들이 높게 솟아있다. 예수와 요한은 흰 옷을 착용하고, 하늘에서 연주하는 칠 선녀는 화려한 장신구를 쓰고 오색한복을 입고 있다.²⁷⁾

운보의 21번 작품 〈최후의 만찬〉(The Last Supper)은 전통한옥의 사랑채에 창틀을 걸어 올린 상태에서, 가운데 상을 차려놓고 예수와 12 제자가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예수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있는데, 상 위를 바라보며 두 손으로 음식을 가

24) Andrew F. Walls,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Studies in the Transmission of Faith* (Maryknoll, NY: Orbis Books, 1996), pp.3-7.

25) 김기창, 『예수의 생애』, 4-5쪽.

26) 김기창, 『나의 사랑과 藝術』(서울: 정우사, 1977), 125쪽.

27) 김기창, 『예수의 생애』, 24-25쪽.

리킨다. 상 위에 사기로 만든 잔과 접시 위에 떡과 술이 차려져 있다. 예수의 왼편에 앉은 제자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는 모두 수염을 기르고 있고, 제자들도 두루마기와 갓을 착용하고 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는 빵과 잔을 나누어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다. 여기서 빵과 잔은 각각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며 예수는 이를 기념하라고 가르친다.²⁸⁾ 제자들 중 예수를 잡아 넘기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웅성거린다. 이 작품에서 기둥 뒤에 유다로 추정되는 인물은 예수와 다른 제자들과 분리되어 상의 좌편 귀퉁이에 따로 앉아 있다.²⁹⁾

운보의 7번과 21번 작품을 통하여, 예수의 공생애에 등장하는 세례식과 성찬식의 기본 지식과 의미를 학생들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예수의 생애〉는 복음서 성경본문이 함께 전시되거나 도록에 수록되기 때문에, 작품과 함께 성경을 통한 종교교육이 가능하다. 월스가 설명한 예수와 역사 그리고 성경과 성찬의 연속성을, 운보의 〈예수의 생애〉에서 발견한다. 월스는 세계기독교의 다양성과 복잡성 뒤에 작동하는 두 원리를 제시한다. 첫 번째, ‘토착화의 원리’(indigenizing principle)로서 예수가 믿는 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듯이, 기독교메시지는 수용하는 문화를 거부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민족과 문화의 공동체, 가족, 사회를 통하여 전달된다는 원리이다.³⁰⁾ 둘째로 ‘순례자의 원리’(pilgrim principle)에 따르면, 신은 믿는 자를 “있는 그대로” 머물게 하기보다는 신이 원하는 자리로 변화되어 이동하기를 원한다. 특수한 시공간의 문화에 평안함을 느끼며 독특성과 개별성을 지니면서, 한계를 넘어서 보편적 메시지를 공유하고 일체감과 소속감을 강화한다. 기독교인은 두 가지 국적을 지니는데, 바로 신앙의 가족에 대한 충성과, 사회공동체, 국가나 가족 및 단체에 대한 충성이다.³¹⁾ 한국기독교인은 한국 국적과 함께, 기독교신앙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양 국적 사이에 적절한 긴장과 조화를 통하여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IV. 운보의 작품에 대한 비교종교학

“고대 문명의 유적을 찾아 고대에 대한 향수를 보며 또한 처음 보는 많은 나라의 예술품을 대할 때의 기쁨. 고대 문명이 잠자고 있는 나라마다 간직해 있는 예술품들은

28) 성찬에 대한 해석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르다. 〈예수의 생애〉를 그리던 1952년에 운보는 장로교인이었고 1985년에는 천주교로 개종하여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는다.

29) 김기창, 『예수의 생애』, 56-57쪽.

30) Walls,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pp.7-8.

31) Ibid., pp.8-9.

우리의 정신적 양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우리 몸을 살찌게 했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술적 작업이 얼마나 값있는 것이었던가 하늘에 감사하기도 했지.”³²⁾

철학자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에 따르면, 예술가는 새로운 창조를 하면서 내면의식을 작품에 투영한다. 예술은 행위를 위한 수단이며 대상이다. 물질의 차원을 간과해 온 기독교세계관에서 물질세계를 나타내는 예술작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지상의 존재로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 중 중요한 위상을 가지며, 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고상한 존재로서 신의 선택을 받았다. 따라서 인간은 신이 창조한 만물에 대해 “책임 있는” 존재이다.³³⁾

비교종교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독교인간관의 특징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종교학자 이능화(李能和, 1869-1945)는 불교와 기독교의 경전과 교리를 비교하였는데, 기독교와 불교는 <표 1>처럼 세 가지 차원에서 인간관의 차이를 보인다.³⁴⁾

<표 1> 기독교와 불교의 인간관 비교

기준	기독교	불교
인간의 기원 대조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제6일째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였다.”	능가경에서 “생명의 원인은 제8아뢰야식인데, 생멸 속에 진실하고 항상 한 성품이 흐르고 있다. 비유하자면, 진흙덩이와 흙먼지가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한다.
창조의 원리 대조	하느님은 성스럽고 신령하여 형상이 없지만 성경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한다.	진실한 부처는 형상이 없고 법신(法身)은 모양이 없으나 부처님은 32상, 80종호를 나타내니 이것은 오로지 중생의 마음에 따른 것뿐이다.
인간의 평등성 대조	하느님은 오직 한 분뿐이며, 모든 동물은 다만 감각만 있으며 사람은 평등한 영혼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로지 내가 홀로 존귀하다’고 하셨지만, 불교의 사상은 모든 중생과 모든 유정(有情)들이 모두 평등한 불성(佛性)이 있는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의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로서, 그를 감싸는 자연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고 질서를 부여한다.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자연 위에 인간의 흔적을 남긴다. 하느님의 창조사역을 인간이 자연에 대해 계속 이어간다. 창조활동은

32) 김기창, 『深淵과 함께 藝術과 함께』(서울: 경미문화사, 1978), 72-73쪽.

33) Nicholas Wolterstorff, *Art in Action* (Grand Rapids: WBEP, 1980) pp.72-73.

34) 이능화, 『百教會通』, 강효중 역 (서울: 운주사, 1989), 103-136쪽. 이능화는 도교, 귀신술교, 신선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바라문교, 태극교, 대중교, 천도교 등과의 교리적 비교를 통하여 하늘에 대한 불교의 관념을 중심으로 세계종교를 통합하고 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작업이다. ‘세계의 정원사’(the world's gardener)로서 예술가는 작품의 창조를 통하여 책임을 수행한다.³⁵⁾ 기독교 예술가는 창조하는 존재이며, 샬롬(shalom)의 존재가 된다. 신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샬롬은 적대감과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 의미에서 기쁨의 단계까지 포함한다. 하느님 앞에서, 자연 안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삶을 즐기며, 나 자신의 삶을 즐겨야 한다. 예술을 한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활동 그 자체를 통하여 책임을 실천한다.³⁶⁾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가는 작품을 통하여 평화와 정의를 표현한다. 예술가는 구약의 예언자처럼 불의에 대항하여 정의를 전달하고, 평화를 선포한다.³⁷⁾

“오랜 시간이 흐른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고대 〈돌예술〉과 모든 작품들이 거장의 개인 속에서 이루어진 것보다도 무수한 인간의 집단적 창조력에 의해 만들어진 사실을 새삼 느낄 때 그것은 인간이 만들었다느니보다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민족의 손을 빌린 신의 조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나게 했다.”³⁸⁾

기독교예술가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가치와 메시지를 작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실체와 관련된 이미지를 전달하다는 데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따라서 화가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예술 활동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변혁의 과정이다.

V. 〈예수의 생애〉의 창작배경: 한국전쟁의 고통

“6.25동란 때 우리는 우향의 집이 있는 군산으로 피난 갔다. 군산 시외에 있는 구암동에서의 3년은 나의 작품 세계에 중요한 시기였다. 변화의 한 단계를 이루어 놓게 한 계기를 마련해 준 곳이었다. 그때 나는 예수의 생애를 이조 풍속에 따라 전 30장의 성화로 완성했던 것이었다.”³⁹⁾

35) Wolterstorff, op. cit., pp.74-78.

36) Ibid., p.79.

37) Ibid., pp.79-80.

38) 김기창, 『深淵과 함께 藝術과 함께』, 149-150쪽.

39) 김기창, 『深淵과 함께 藝術과 함께』, 196쪽.

운보는 한국전쟁(1950-1953)을 경험하면서 한국인으로서 민족의 고통을 함께 느꼈고, 가장으로서 청각장애의 난관을 극복하며 예술혼을 불살랐다.⁴⁰⁾ 공동체와 개인의 고통이 함께 만나 예수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 운보의 〈예수의 생애〉는 역사의 폭력 앞에 한국인의 고통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운보는 한국전쟁 중 군산에 있는 아내 우향의 집으로 피난을 갔다.⁴¹⁾ 따라서 4번 작품 〈아기예수 이집트로 피난〉(The Flight in Egypt)은 우남의 자전적 삶을 투영한다. 그는 군산에 머물며 정체성과 화풍에 큰 변화를 경험한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독일 베를린의 독일역사박물관(DHM)에서 “루터 효과: 세계의 개신교 500년”(The Luther Effect)이라는 주제로 운보의 〈예수의 생애〉를 4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시하였다.⁴²⁾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독일어 성경 번역은 사제 중심 성경해석에서 시민의 자유로운 해석으로 신앙의 지평을 민주화하였다. 마찬가지로 운보의 작품에서 두루마기를 입고 한국산하에서 한국인들 가운데 활동하던 예수의 모습은 기독교의 한국화를 잘 보여준다.

〈예수의 생애〉를 운보는 30개 장면으로 구분한다. 원래는 29개였으나, 독일 천주교 선교사의 권면에 따라 〈부활〉을 포함시켜 총 30개의 연작으로 재탄생하였다. 운보의 〈예수의 생애〉는 주제별로 크게 ① 탄생, ② 세례, ③ 축복, ④ 수난, ⑤ 부활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예수의 탄생부터 유년시절까지 전반부를 구성하고,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유대인이 아닌 ‘한국인들’을 축복하고 치유하지만, 예루살렘 입성 후 재판을 받고 결국 십자가형을 받아 죽는다. 이후 부활 후 지상에 나타나고 승천한다. 운보에게 〈예수의 생애〉는 화풍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획기적 계기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신앙심을 심화시키고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간이었다.

“그것은 마음 괴로운 순간이었다. 어두운 동굴 속에는 한줄기 빛이 어디에선가 비껴들어오고 있었고 나는 그 빛줄기 아래에서 예수의 시체를 부둥켜안고 통곡하고 있었다. 통곡을 끝내고 문득 정신을 차리니, 나는 동굴이 아닌 햇빛이 눈부신 방에 앉아 화필을 들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다가 깜박 졸았고 졸다가 예수의 괴기한 꿈을 꾸는 것이었다. 이 무렵 나는 예수의 행적을 더듬는 성화를 그리고 있었다. 때는 6.25전쟁의 가열로 온 민족이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냈던 1952년 전북 군

40) 운보는 1946년 2월 17일에 우향과 결혼한 후 자녀를 키우며 작품 활동을 했다. 1남 3녀의 자녀 중, 1947년 6월 장녀 현(玄)을, 1949년 2월 장남 완(完)을 낳았다. 1952년 6월 차녀 선(璇)을, 1955년 1월에 삼녀 영(瑛)을 낳았다.

41) 운보는 1946년 결혼 후 매년 우향과 부부전을 개최했다. 1950년 6월 제4회 부부전을 열었지만 한국전쟁발발로 남북위기에 직면한다. 1951년 1월 3일 군산으로 피신하였다.

42) 김윤덕, 「두루마기에 갓 쓴 ‘운보의 예수’ 베를린 가다」, “조선일보”, 2017년 4월 4일자.

산의 피난처였다. 나는 전북 군산의 처가에서 나의 고통스런 생활을 화필로 달래며
어서 이 땅에서 전쟁이 끝나고 통일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고 있었다.”⁴³⁾

운보가 〈예수의 생애〉를 창작한 배경은 한국전쟁이다. 1945년 일제로부터 광복의
기쁨을 맞은 지 채 5년도 되지 않아, 남북의 이념갈등을 경험하며 피비린내 나는 민족
전쟁을 목격하였다. 운보가 꿈에서 본 “예수의 시체”는 민족의 주검이었고, 그의 머물
렀던 “어두운 동굴”은 암울했던 한국의 역사적 상황이었다.

“예수의 탄생을 그려 낸 작품에서 한동안 발길을 떼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마구
간에서 유대인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가 아니라, 전래동화에서 나
올 법한 질박한 초가집 마구간에서 범부의 입성을 한 요셉과 마리아가 친근해 보
인다. 갓 쓰고 도포 입은 양반 남정네는 찾아 볼 수 없다. 여염집 아낙과 시골 촌
부들이 갓 몸을 푼 산모와 아이를 위해 제 가진 것을 나누려 밀려든다. 머리에 바
구니를 이고, 밥상을 끌어안고 예수 곁으로 모여든다. 작은 나눔과 새 생명을 향한
소박한 환대의 실천, 그림에서 감도는 기운이다.”⁴⁴⁾

1945년 해방 후에 운보는 화가 우향(雨鄉) 박래현(朴來賢, 1920-1976)과 결혼하였고
〈자유신문〉의 기자로 일했다. 김기창은 호를 운포(雲圃)에서 운보(雲甫)로 변경하며 창
작열정을 정비하였다.⁴⁵⁾ 일본화풍의 영향과 대중의 비난과 외면을 벗어나 새로운 화풍
을 시도하였고, 언론가로 대중과 소통하였다. 1946년 조선조형예술동맹 회원이 되었고,
최초로 〈운보-우향 부부전〉을 삼월백화점에서 개최하였다. 1948년에 기자직을 사임하
고 동양화연구소 창립하며 창작활동에 전념하였다. 1950년에 제3회 부부전을 동화백화
점에서 개최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전시작품이 유실되고 군산의 처가로 피난하
였다. 피난생활도 그의 창작열을 막지 못했다. 그는 미군의 초상화를 그려주며 생계를
유지하였고 〈춘향도〉 등을 완성하였다. 부산에서 운보의 전시를 후원한 김형민은 운보
에게 풍속화 창작을 권유하면서 신윤복(申潤福)의 풍속화 30편을 자료로 제공하였다.
최병식은 운보가 전쟁 시기에 “다른 차원의 전쟁”을 치루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43) 김기창, 「나의 심혼을 바친 갓 쓴 예수의 일대기」, 김기창, 『예수의 생애』(서울: 경미사, 1978), 112-113쪽.

44) 고은지, 「김기창 전, 〈예수와 귀먹은 양〉」, 『갈리진 시대의 기쁜 소식』, vol. 1053 (서울: 우리신학연
구소, 2014), 99쪽.

45) 김기창은 구(口)를 빼어 ‘운포’에서 ‘운보’로 호를 바꾸었고, 자신을 범주 짓는 다양한 형태의 테두리
를 벗어나 자유롭게 예술의 창조성을 발휘할 마음이었다.

“전시회에서 팔린 돈으로 조그마한 집도 한 채 마련하게 되었고, 비록 피난이지만 생활도 안정되었다. 동시에 그들은 피난살이 2년째에 접어들면서 드디어 다시금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구암동에서 자신들의 회화 세계에 혁명적인 ‘해체시기’를 전개한다.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 수많은 병사들이 피를 흘리며 조국을 위해, 이념을 위해 쓰러져 갈 때, 그들은 자신들의 예술세계에 뛰어들어 또 다른 차원의 치열한 전쟁을 치루고 있었던 것이다. 1952년 둘째딸 선(璇)이 태어났고, 그 와중에서도 운보와 우향은 화면 속에서의 전쟁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⁴⁶⁾

1950년대 운보는 ‘해체시기’를 직면하였다.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鎬)의 제자로서 학습한 일제화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자적 화풍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수의 생애〉는 기독교정신을 한국인의 정서에 담으려는 노력이다. 그의 작품에서 예수는 중동이 아닌 한국에서 고통 받는 한국인들 가운데 태어난 것이다. 운보는 예수의 탄생을 지켜보는 시선을 당시 시대를 지배하는 남성이 아닌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VI. 〈예수의 생애〉에 나타난 운보의 여성관

출생 때부터 생사의 고비를 넘긴 운보는 유년시절부터 여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운보는 김승환(金升煥, 1889-?)과 한윤명(韓潤明, 1894-1932)의 장남으로 1914년 2월 16일에 서울 종로구 운니동 18번지에서 출생하였다. 김승환은 본처와 헤어지고 한윤명과 1926년에 결혼하였다. 운보의 모친은 진명여고 1회 졸업생으로 감리교신자였다. 운보의 외조모는 77세까지 운보를 돌보았다. 반면에 운보의 부친은 충남 공주출신으로 총독부 토지관리국에서 일했지만, 사업에 실패하며 경제적으로 아내에게 의존하였다. 운보의 여성에 대한 깊은 애정과 유대는 그의 불운한 가족배경 때문이다.

“호적상으로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두 번째 부인과 살면서 낳게 된 첫아들이 바로 운보이며, 그에 따른 어머니의 정신적, 현실적 고통은 어떠한 기록에도 없지만 아버지의 무능과 함께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운보는 성장한 이후에도 자신의 유년 시절과 그 기억에 아버지는 지워져 있었고, 아버지로 인해

46) 최병식, 『운보 김기창: 예술론 연구』(서울: 동문선, 1999), 31쪽.

이어지는 친척이나 어떠한 인연과도 거의 단절되었다.”⁴⁷⁾

운보는 『천자문』과 『통감』을 공부하였고 6세에 인사동의 중앙유치원에 입학했다. 그는 서당과 유치원에서 전통교육과 신학문을 동시에 익혔다. 7세가 되던 1920년에 승동보통학교에 입학한 운보는 장티푸스의 고열로 청각을 잃었고, 이후 장애로 인하여 암울한 나날을 보냈다. 운보의 모친은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가며 개성의 정화여학교, 서울의 태화여자관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운보의 장애는 그가 예술가로 입문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청각장애로 한글과 일본어 글자를 채 익히지 못한 상태라서 그 어려움이 동시에 겹쳐 있었다. 그러므로 운보는 자연히 수업시간이 지루해졌고,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교재의 그림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노트의 빈 공간에 그림들을 옮겨서 그려보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당시 즐겨 그렸던 소재는 사람, 기차, 새, 꽃, 나무, 개, 산 등이었고, 어머니와 다니던 교회에서 부쳐온 크리스마스카드와 성화들을 신기하게 여기며 깊은 인상으로 간직하게 된다.”⁴⁸⁾

운보에게 모친의 영향은 지배적이었다. 그녀는 교육자로서 운보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앙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불우한 시기를 적극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운보는 평생을 두고 세 여자에게 큰 위로와 영향을 받았는데, 외조모, 모친, 아내는 운보가 침묵 안에서도 삶의 역동성과 창작의 열정을 펼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한 마디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한 불우한 귀먹은 소년이 올바르게 살아가며 예술에 전념하도록 정신적인 가르침을 준 세 분의 여성을 중심으로 한 내 지난날이다. 이 세 분은 나의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아내이다. 모두 평범한 여성들이다. 그러나 세분은 조용히 자기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외손자이고 아들이고 남편인 나를 키워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어 그런대로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⁴⁹⁾

운보의 생애는 예수의 생애의 연장이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예수의 삶에 투영하고,

47) 최병식, 앞의 책. 14-15쪽.

48) 같은 책. 18쪽.

49) 김기창, 『나의 사랑과 藝術』, 20-21쪽.

한국전쟁이 발발한 상황에서 가장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장애를 가지고 화가의 길을 가게 된 운보는 15세 때 동네 형과 함께 배우의 초상화를 목탄으로 그리곤 하였다. 흥미롭게도 그 때의 심정을 30년 뒤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모든 정열과, 브로마이드 속에서 방그레 웃고 있는 또는 멋지게 가재수염을 붙이고 있는 남우(男優)와 여우(女優)의 모습을 일 푼 틀림없이 그대로 지면 위에 옮겨 보겠다는 의욕으로 가슴이 벅차 있는 것이다. 밥 먹을 생각도 잊어버리고 아침부터 저녁나절까지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는 무아경(無我境)에서 오락가락했던 모양이었다.”

열정과 재능을 지닌 운보는 17세가 되던 1930년에 승동보통학교를 늦은 나이에 졸업하였고, 이후 진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부친은 아들에게 목수 일을 제안했지만, 모친의 생각은 달랐다. 운보의 문학과 예술의 재능을 잘 알고 있던 모친은 지인을 통하여 이당 문하에 아들을 보냈다.

“어머니는 그동안의 내 그림 솜씨와 글재주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방면으로 키우고 싶었다. 그렇지만 문학은 어려울 것 같았다. 그저 공부하는 마음으로 취미 삼을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술공부는 다르다. 잘만 하면 한 인간으로 존경받을 수도 있고, 좀 더 잘하면 위대한 예술가가 될 기회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욕심은 가질 필요는 물론 없다. 다만 그림을 그리고 그것으로 평생 인간다운 생활을 해주었으면 하는 소원뿐이었다.”⁵⁰⁾

운보를 화가의 길로 인도한 모친의 신앙을 따라 감리교인이 되었고, 스승 이당(以堂)의 신앙을 따라 장로교인이 되었다가, 1985년에 딸의 신앙을 따라 천주교인이 되었다. 그에게 감리교, 장로교, 천주교의 경계는 중요하지 않았다. 운보는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의 신앙을 공유하였고, “사람의 운명이란 사람 만나는데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고백하였다.⁵¹⁾

운보는 그림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1931년 5월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널뛰기〉(板上跳舞)로 최초 입선을 했다. 작품은 세브란스병원 치과과장 부스박사가 구입하여 진료실에 걸어두었다가 한국전쟁으로 행방불명이 되었다. 1932년 제11회 선전에 펠리칸 한 쌍으로 다시 입선을 수상했다. 운보는 이당이 다니던 안국교회 목사사택 2

50) Ibid., 100쪽.

51) Ibid., 104쪽.

층에서 그림을 완성하였다. 이당은 주일예배에 올 때마다 제자를 지도했고 운보는 23세에 김우현 목사의 세례를 받았다.⁵²⁾ 그러나 1932년 10월 15일에 운보의 모친은 산후 부황으로 심장마비와 뇌일혈이 겹치면서 38세에 사망하였다. 모친의 사망은 그림공부를 막 시작한 운보에게는 큰 슬픔이었다.

“하늘이여 어찌된 노릇이오니까? / 왜 나의 엄마를 앗아가시나이까?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 왜 이 시점서 다려가시나이까?”

운보의 인생과 예술에게 모친의 영향은 컸다. 서양화가 나혜석은 운보의 “작품 속에는 언제나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혼이 깃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했다.”고 평하였다. 운보 역시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였다. “나의 작품 속에는 필연적으로 어머니의 영혼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⁵³⁾

모친의 사망 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지만, 무능한 부친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는 세브란스병원 부스박사 부부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팔아 생활을 했다. 운보는 금강산에 가서 스케치를 하다가도 깊은 산 속에서 찬송을 부르곤 하였다. “이 천지간 만물 돌아/복 주시는 주 여호와/전능 성부 성자 성신/찬송하고 찬송하세.”⁵⁴⁾ 운보는 산천과 바다의 인상을 가지고, 1937년 제16회 선전에 출품한 〈고담〉(古談)이 특선과 선전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동시에 수상함으로써 24세에 조선화단에 화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1938년 제17회 선전에 〈하일〉(夏日)을 출품하여 특선과 총독상을 수상하였다. 1939년 제18회 선전에선 〈고완〉(古翫)으로 특선을 수상했는데, 박물관에서 부처를 바라보는 여성의 모습을 그렸다. 1940년 제19회 선전에선 〈여일〉(麗日)로 특선을 수상함으로써, 연속 4회 특선을 수상하여, 규약에 따라 27세에 추천작가가 되었다.

1942년 운보에게 새로운 여성이 다가왔다.⁵⁵⁾ 그녀는 우향(雨鄉) 박래현(朴來賢, 1920-1976)이었다. 전주여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를 졸업한 인재로서 전북 순창국민학교의 교사를 지낸 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에 입학하여 동양화를 공부하였다. 우향은 1942년 선전에 〈장〉(粧)을 출품하여 특선과 총독상을 함께 탔다. 그녀는 운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모친에게서 느꼈던 그리움과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다. 우향은 운보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동료로서 조언자가 되었다.⁵⁶⁾ 1976년 우향이 57세로 타계할 때까지 부부 전시회를 10회까지 이어갔다. 운보의 〈예수의 생애〉 연작 중 여성의

52) Ibid., 110-111쪽.

53) Ibid., 135쪽.

54) Ibid., 125쪽.

55) 김기창, 『沈黙의 深淵에서』(서울: 법조각, 1988), 140-145쪽.

56) 김기창, 『畫房餘滴』(서울: 학원사, 1962), 54-55쪽.

이미지가 부각된 작품은 1번 작품 〈수태고지〉(The Annunciation)과 2번 작품 〈아기 예수의 탄생〉(The Birth of Jesus)이다. 물론 11번 작품 〈사마리아의 여인〉(The Samaritan Woman), 18번 작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Let he who is without sin cast the first Stone), 19번 작품 〈여인, 예수의 발을 씻음〉(May Magdalen Washes the Feet of Jesus)도 여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지만, 운보의 작품에서 여성의 뒷모습만 그려지면서 오히려 정면을 바라보는 예수의 중심성이 부각되고 있다.

1번 작품 〈수태고지〉에서, 운보는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의 잉태 사실을 알리는 모습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한다. 왼편에 가브리엘 천사는 도교의 선녀모습으로 머리에 족두리를 얹고 있으며 오색 옷을 입고 구름에 싸여있다. 오른편에 마리아는 땀은 머리끝에 땀기를 단 처녀로 묘사된다. 별채의 벽에 장옷(머리가리개)이 걸려 있고, 방 가운데 무명실타래와 물레가 놓여있다. 마리아의 정숙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양갓집 규수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수태고지〉의 공간은 전형적인 한옥의 모습을 띄고 있고 전면 우측에는 도자기가 위치해 있다.

2번 작품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한국의 마구간을 탄생의 장소로 삼는다. 중동의 목동이나 양이 보이지 않고, 수탉, 황소, 말과 암탉으로 장소의 비천함과 누추함을 표현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성의 압도적 현존이다. 장옷으로 머리를 덮고 있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아기 예수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는 여성들, 흰옷을 입고 서 있는 산파, 음식상을 차려오는 여성, 광주리로 물건을 나르는 여성들의 모습이 이채롭다. 중앙 상단에 큰 별이 있고, 그 아래 성모와 예수의 머리 위에 후광이 빛난다. 이처럼 운보의 여성관은 성경의 이야기를 한국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

VII. 결론: 운보의 작품을 통한 종교교육의 가능성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기독교(World Christianity)의 관점에서 예술작품을 통한 종교교육의 사례로서 운보 김기창의 〈예수의 생애〉를 살펴보았다.

〈표 2〉 〈예수의 생애〉를 활용한 종교교육의 사례

모델	기준	종교교육의 목표	종교교육의 내용
1	경전·의례	기독교 의례 이해	성경, 세례식, 성찬식 이해
2	비교종교	기독교 인간 이해	기독교와 불교의 인간관 비교
3	전쟁	기독교와 역사	역사의 종교적 의미 탐구
4	여성	기독교와 사회	사회문제와 종교의 역할

운보의 〈예수의 생애〉는 30편에 이르는 대작이므로, 모든 작품을 제한된 강의시간에 모두 활용하기보다, ① 경전·의례, ② 비교종교, ③ 전쟁, ④ 여성 등 특정주제를 정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다(〈표2〉). 운보의 삶과 글에 대한 이해를 겸한다면, 그의 작품들을 종교교육의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기본모델에 추가로 활용이 가능한 주제별 모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절기(festival) 중심의 종교교육이 가능하다. 작품 2번 〈아기예수탄생〉(The Birth of Jesus)과 28번 〈부활〉(The Resurrection)을 성탄절과 부활절을 비롯한 기독교절기 설명에 이용한다. 1학기에 부활절이, 2학기에 성탄절이 기념되므로, 학기별로 변화시켜가며 기독교세계관을 시간(time)의 차원에서 설명한다. 대학채플이나 대학 주변교회의 예배참여와 병행하며, 절기 관련 영화를 상영한다.

둘째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dogma)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는 종교교육이 가능하다. 〈예수의 생애〉의 후반작품 중 작품 20번 〈예루살렘에 입성〉을 시작으로, 21번 〈최후의 만찬〉, 22번 〈겔세마네 동산의 기도〉, 23번 〈심판받다〉, 24번 〈수난을 당하다〉, 25번 〈십자가를 지고〉, 26번 〈십자가에 못박힘〉, 27번 〈사체를 옮기는 제자들〉, 28번 〈부활〉, 29번 〈막달라 마리아와 만남〉, 30번 〈승천〉을 순서대로 활용하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다룬다.

셋째로, 예수의 교훈(teaching)을 중심으로 비유와 사건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종교교육이 가능하다. 10번 〈산상설교〉에서 예수의 가르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15번 〈착한 사마리아 사람〉과 16번 〈탕자 돌아오다〉 등을 활용하여 이웃사랑과 하나님사랑에 대한 기독교의 윤리관과 신관을 설명한다. 나아가 11번 〈사마리아의 여인〉, 12번 〈병자를 고치다〉, 13번 〈5천인을 먹임〉, 17번 〈어린이들을 축복하다〉, 18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등의 사건들을 가지고 예수의 사역이 당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한다.

넷째로, 미켈란젤로, 카라바조, 렘브란트, 고흐와 같은 외국작가의 작품들과 운보의 작품을 비교함으로써 예술작품을 통하여 한국기독교의 특징과 차이를 부각시키는 종교교육이 가능하다. ‘세계기독교’의 관점에서 서구기독교의 관점과 해석이 결코 절대적일 수 없다. 운보의 작품을 통하여 기독교가 한국의 문화 속에 얼마나 창조적으로 해

석되고 있는지를 학생들과 토론한다.

추후 연구에서 운보의 다른 종교 작품과 자서전 및 서화집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관계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예술을 통한 종교교육의 창조적 모델들을 보다 정교하게 제시해 볼 수 있다. 고흐가 남긴 편지가 그의 작품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하듯이, 기자였던 운보의 글들은 그의 작품을 종교교육의 텍스트로 활용하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지, 「김기창 전, 〈예수와 귀먹은 양〉」, 『갈리진 시대의 기쁜 소식』, vol. 1053, 서울: 우리신학연구소, 2014.
- 김기창, 『畫房餘滴』, 서울: 학원사, 1962.
- 김기창, 『나의 사랑과 藝術』, 서울: 정우사, 1977.
- 김기창, 『深淵과 함께 藝術과 함께』, 서울: 경미문화사, 1978.
- 김기창, 「나의 심혼을 바친 갓 쓴 예수의 일대기」, 김기창, 『예수의 생애』, 서울: 경미사, 1978.
- 김기창, 『沈黙의 深淵에서』, 서울: 법조각, 1988.
- 김윤덕, 「두루마기에 갓 쓴 ‘운보의 예수’ 베를린 가다」, “조선일보”, 2017년 4월 4일자.
- 김혜주, 「김기창의 바보산수에 나타난 현대성」, 『현대미술사연구』, 제13권1호(서울: 현대미술사학회, 2001).
- 손원영 편, 『예술신학 톺아보기』, 서울: 신앙과지성사, 2017.
- 윤종선, 「운보 김기창의 화문집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41권(서울: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8).
- 이능화, 『百敎會通』, 강효중 역, 서울: 운주사, 1989.
- 이성덕, 손의성, 안신, 김기철, 『기독교 다시 보기』, 대전: 배재대학교학술정보처, 2014.
- 이주연, 「김기창 화백작 ‘예수의 생애’ 독일정부주최전시에 초청」, “가톨릭신문” 2017년 4월 23일자.
- 장춘식, 이성덕, 강원돈, 『기독교와 현대사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최병식, 『운보 김기창: 예술론 연구』, 서울: 동문선, 1999.
- 최병식, 「운보 김기창 ‘바보화풍’의 시기별 특징과 가치」, 『동양예술』, 제33권(서울: 한국동양예술학회, 2016).

- Barnes, L. Philip, "Democracy, political salvation, and the future of religious education," ed. by Mary Shanahan, *Does Religious Education Matter?*, London: Routledge, 2017.
- Britton, Karia Cavarra, "Toward a Theology of the Art Museum," eds. by G. Buggeln, C. Paine & S. B. Plate, *Religion in Museums: Global and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London: Bloomsbury, 2017.
- Chancey, Mark A., "The Bible and American Public Schools". eds. by M. D. Waggoner & N. C. Walker, *The Oxford Handbook of Religion and American Edu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Irvin, Dale T., "What Is World Christianity?", eds. by J. Y. Tan & A. Q. Tran, *World Christianity*, Maryknoll, NY: Orbis, 2016.
- Kim, Sebastian & Kim, Kirsteen, *Christianity as a World Religion*, 2nd ed., London: Bloomsbury, 2016.
- Sanneh, Lamin, *Translating the Message*, Maryknoll, NY: Orbis, 1989.
- Sanneh, Lamin, *Disciples of All Nations*, Oxford: OUP, 2008.
- Sullins, D. Paul, "Beyond Christendom," ed. by Elizabeth Koepping, *World Christianity IV*, London: Routledge, 2011.
- Walls, Andrew F.,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Maryknoll, NY: Orbis Books, 1996.
- Walls, Andrew F., *The Cross-Cultural Process in Christian History*, Maryknoll, NY: Orbis Books, 2002.
- Wolterstorff, Nicholas, *Art in Action*, Grand Rapids: W. B. E., 1980.
- Ziebertz, Hans-Georg, *Religious Education in a Plural Western Society: Problems and Challenges*, Münster: Litverlang, 2003.

원고접수일: 2018년 12월 1일, 심사일: 2018년 12월 5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8일

연구자 소개: 안신

① 전공: 종교학 · 세계기독교 / 소속과 직위: 배재대학교 교수

② 관심영역: 종교현상학 · 비교종교학, 종교교육, 종교와 예술, 종교와 과학

③ 주요논저: 「영국 종교교육의 특징과 한계」, 『세계의 종교』, 『세계기독교의 이해』 등

④ E-mail: shinahn@pcu.ac.kr

Abstract

Religious Education Encounters the Arts in World Christianity:
Focusing on Unbo Kim Kichang's *Life of Jesus*(1952)

Ahn, Shin
Pai Chai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Unbo Kim Kichang's *Life of Jesus* from the perspective of World Christianity by analyzing the possibilities and models of religious education through the arts. World Christianity seeks for new interpretations apart from Western Christian interpretations. In this context, a deaf painter, Unbo contributed to the Koreanization of Christian arts. During the Korean War, he escaped from Seoul to become a refugee in Gunsan, where he created the Korean image of Jesus working among suffering Koreans in white globe and horse-tail hat. I proposes subject-centered approach to apply Unbo's works into religious education, which examines various subjects such as scripture/ritual, comparative religion, war, and woman. The aspects of festival, doctrine, teaching, and difference can be considered. Further study should be focused on the relation between his other works and writings in order to construct more available models in religious education.

Key words: Unbo Kim Kichang, *Life of Jesus*, *Religious Education through the Arts*, *World Christianity*, *Koreanization*